

# '무등산 무돌길' 민주화운동 성지 순례길 기원 완주대회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천년 문화와 광주 정신이 어린 무등산 무돌길을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 순례길'로 만들기 위한 '제2회 전국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가 지난 20일 무등산 일원에서 열렸다.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와 광주시체육회,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주)클빙, (주)비오신코리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6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사진>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걷거나 중간중간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완주를 지원했다.

김인주 무등산무돌길협의회 상임의장은 "성공적인 대회 성과를 토대로 무돌길이 무등산의 전통 문화는 물론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명품 길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돌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 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36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 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버스서 심정지 7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호남대 학생들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학생 3명이 시내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CPR)로 살렸다. 주인공은 사회경쟁대학 중국어학과 이준하(3년),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정주현(3년), 문화예술체육대학 스포츠레저학과 이명학(3년)씨.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호남대생 이준하(왼쪽부터)·정주현·이명학씨. <호남대 제공>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광산구 호남대 정문앞에서 500번 버스에 승차 뒤 송정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조모 할아버지(78)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버스 바닥으로 쓰러지자 신속한 CPR과 응급조치 등의 협력으로 살렸다.

정주현씨는 "119 상황실 직원이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속도에 맞춰 다른 학생들이 CPR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환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고정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10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교통혼잡을 피해 길가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할아버지의 딸 조영미씨는 "아버지는 18일에 심장제세동기삽입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회복 중이다. 활동이 가능해지면 생명의 은인인 학생들과 꼭 식사라도 하면서 감사함을 표시하시겠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서부소방서는 호남대 학생들을 소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 인증인 '하트세이버'로 추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류중석 경실련 대표, 광주전남도시설계학회 초청 강연

류중석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중앙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이만식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초청으로 전남대 공과대학 2호관에서 '도시 분야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사진>



이날 특별강연에는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류영국(주)지오시티 대표, 오세규 전남대 교수, 이상준 동신대 교수 등 지역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류 공동대표는 "적당주의 패배, 급속한 도시화, 개발 우선주의 등이 만연한 우리나라 도시는 불안하고, 불편하며, 불쾌한 도시"라며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개발이 지배층, 권력자의 의도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의로운 자원 분배 및 접근성 확보, 공공의 이

익을 우선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개발 등을 최근 세계적인 도시 관련 의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올바른 시민운동을 통해 도시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포용도시, 회복탄력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 전남 '나눔리더 3호' 가입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3호로 가입했다. 기탁된 나눔리더 성금은 전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전남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 해소 및 위기기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 사랑의열매 제공>

#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전남 복지사각 아동 지원 협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분부는 지난 17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탈사각'과 함께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및 복지사각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제공>

##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아 옥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쇼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오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50 일꾼의 탄생(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MBC 다크프라이미 <당신의집은 어디에있는가>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아 옥이(재)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내내 운명
11	30 KBS 뉴스라인	00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50 나이트라인
12	10 다크 인사이트(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튜디오 K	10 스포츠 매거진 50 양코르 UHD 특선 다크 <드라이빙 트레이블러>	20 스포츠 투나잇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호기심딱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00 빅 블루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인간과 바다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사랑한 홍콩·마카오>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5월엔 남도로 함께 1부 초록에 맞는다>
08:35 한글용사 아이(재)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8:5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2:50 인물사담회
09:05 고고디노 우리동네공룡	17:00 패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티타와 쿠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3일 庚辰)

<p>36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8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라. 60년생 세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72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평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임에 변한다. 96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1, 84</p>	<p>42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54년생 노력을 전제한다면 유익한 국면에 이른다. 66년생 거추장스러운 것은 차지고 변하게 일한다. 78년생 주권에 치우친다면 공든 탑도 쉽게 무너진다. 90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모두가 납득하리라. 02년생 별로 상권될 일이 아니니 패배치 말고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30, 77</p>
<p>37년생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느니라. 49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61년생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73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집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녀야겠다. 85년생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인다. 97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2, 60</p>	<p>43년생 반보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울고 싶을 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웃고 있다. 67년생 성과들이 생길 수도 있으나 여과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79년생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91년생 예상대로 진행되었지만 의외의 변수도 보인다. 03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춰오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47, 94</p>
<p>38년생 기준과 체계가 서야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50년생 선택을 잘못한다면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62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74년생 부담스런 짐을 털어낼 것이다. 86년생 실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될 것이니라. 98년생 평 대신 다행이 만만족도는 관참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70</p>	<p>44년생 반복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56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68년생 소모적이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80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92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04년생 표면은 불꽃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88</p>
<p>39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51년생 암초 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63년생 반복적인 점검과 관심만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75년생 표면화시킨다면 경쟁 국면으로 이어질 게 변한다. 87년생 낱알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99년생 마지막 난관일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1, 81</p>	<p>45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기울여라. 57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입만대지 절반은 이룬 셈이다. 69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81년생 사소한 것에서 부터 위험이 썩을 수 있다. 93년생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길은 분명히 열리는 법이다. 05년생 낙낙하게 마려해두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13, 98</p>
<p>40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52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64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76년생 일석이조의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기대할 만하다. 88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질 것이다. 00년생 낙관적인 미래이다. 행운의 숫자 : 34, 74</p>	<p>46년생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46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58년생 진행과정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70년생 검토삼고 달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82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 나겠다. 94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00, 90</p>
<p>41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할 것이다. 53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마다. 65년생 확실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77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89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01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9, 72</p>	<p>4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자. 59년생 비로소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71년생 생각지도 못한 폐역이 보이니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낫다. 83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리라. 95년생 실정을 자제히 알릴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56</p>